

대구 연극에 대한 비평가들의 애증

— 공연비평모임, 『연극의 시간, 비평의 공간』, 연극과인간, 2018

배선애*

국문초록

‘공연비평모임’은 경북대학교 국문과 대학원 동학들로 구성된 비평모임으로, 대구 연극에 대한 감시자와 지원자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의 비평 활동을 정리한 첫 번째 평론집 『연극의 시간, 비평의 공간』은 필자 별로 글을 묶어 다섯 명의 필자를 열거하는 구성을 취했다. 이왕이면 공연비평모임의 관심사인 대구 연극이 강조될 수 있는 구성을 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구성이다. 또한 공연비평모임은 공연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기본으로 하여, 작품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연구자로 출발한 필자들의 장점이 드러난 부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평 대상 작품과 단체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낸 구체적인 연극인이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점, 전반적으로 대구 연극의 아쉬운 점과 한계점 지적에 치우쳐 대구 연극의 장점은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은 이후 비평 활동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연극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삶에서 제거해 버릴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연극에서 경멸하는 모든 것을 삶에서 제거해 버릴 수 있다면, 무엇이 남게 될까요? 우리가 연극에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삶에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연극에는 요구합니다. 진실을, 모든 진실을.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본 작품은 우리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비평가>(후안 마요르가 작, 김재선 역, 『비평가/눈송이의 유언』, 지식의만드는지식, 2016. 72면.)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1. ‘공연비평모임’의 첫 번째 공연평론집

한국회극을 연구하다보면 묘한 갈증이 생긴다. 기사나 자료로만 접하는 이전 시기의 회극과 공연을 들여다보며 여러 가설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검증해나가는 연구과정 자체가 흥미로운 한편으로 연극이라는 장르가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과거의 탐구에만 머물고 있다는 아쉬움에서 촉발되는 갈증이다. 과거의 연극을 들여다보는 만큼 현재의 연극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는 연구자로서의 욕망은 그렇게 연극 현장으로 눈길을 돌리게 만들고, 본 것을 그저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연구자로서의 성질은 어디에라도 무언가 꼬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좀 더 다듬고 매만져서 비평이라는 글쓰기로 세상에 내놓게 된다. 한국회극과 연극의 연구자로 출발했지만 연구 대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현재로까지 이어져 연극 현장에서 연구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평론가로 활동하는 과정, 필자의 경우 이 과정을 자연스레 거쳤지만 이것이 비단 필자에게만 국한된 사례가 아닌 것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극평론가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금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연구자로서만 머물지 않고 연극 현장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임이 그 첫 성과물로 『연극의 시간, 비평의 공간』이라는 공연평론집을 출판했다.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출신의 연구자들이 그들의 지역인 대구경북지역의 연극을 대상으로 열추 10여 년에 걸쳐 작성한 글을 묶어 출판한 것이다. 모임 이름은 ‘공연비평모임’, 필자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범위한 개념인 ‘공연’과 ‘비평’, ‘모임’을 한데 모아놓은 명칭은 특색이 없는 대신 어떤 공연도 포괄하는 열린 의미로 읽혀진다. 그래도 이왕이면 지향점과 대상이 선명한 무언가로 부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5명의 필자는 한국회극과 연극 전공자들 사이에서

존재감 있는 연구자들로 구성되었다. 식민지 시기와 유치진 연구자인 이정숙을 필두로, 1960~70년대 연극과 영화 연구자 이승현, 근대 아동극 연구자인 손증상, 근대 연극론을 중국 혹은 일본과 비교 연구하는 이수은, 김동현이 그들인데, 필자들의 첫 발표된 글이 연제인가를 따져보면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면서부터 연극보기와 평론작성을 하나의 필요조건처럼 설정하고 동학들이 서로 독려하면서 진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필자들의 연구 영역이 분명해서인지 혹은 선후배의 관계가 굳건해서인지 책의 전체 구성은 필자 별로 이루어져 있다. 필자 중 막내인 김동현의 글 묶음이 가장 앞에 있고 가장 선배인 이정숙의 글 묶음이 제일 끝에 배치되어 있으니 필자의 글 배치 순서가 나름의 선후배 순서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 구성에 불만이 생긴다. 필자들 나름대로 문체의 개성이 뚜렷하거나, 필자 별로 특정한 취향을 읽어낼 수 있거나 하는 경우라면 이런 구성이 의미가 있다. 필자의 개성을 확인하면서 서로 다른 시각들을 비교하며 읽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학교 선후배로 구성된 필자들은 연극 현장에 대해 비슷한 시선을 취하고 있었고, 문체 역시 도드라진 개성이 발견되지 않는데도 필자들 개별로 글을 묶어버리고 선후배 순서대로 구성한 것은 매우 편의적이고 손쉬운 편집이면서 책 자체의 성격을 그저 ‘모음집’으로만 한정해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만 보면 이 평론집이 어떤 목적으로 출판되었는지, 이 글들이 무슨 의도로 작성되었는지 모호하다. 지금껏 블로그에 작성한 비평문을 인쇄물로 남기자는 의도에 한정된 것 아니라면 적어도 지금의 이런 구성은 피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어떤 구성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 나름의 대안은 모임의 누군가가 대표로 작성한 머리말에 제시되어 있다.

“공연비평모임의 활동 목적은 대구 연극을 기록하는 데서 나아가 대구 지역 극단과 공연에 대한 감시자이자 든든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6면)

공연비평모임의 관심은 대구 연극이다. 그렇다면 모임에서 보아온 대구 연극이 무엇이고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춰 구성을 했어야 했다. 필자별 구성을 벗어나 대구시립극단을 위시한 대구의 대표 극단이 오히려 기준이 되었으면, 그들의 공연 활동이 평론집 구성의 중심이 되었으면 이 책은 물론 공연비평모임의 성격도 보다 선명하게 제시되었을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 김동현의 글 5편 중 최근 2편은 제35회 대구연극제 참가작품에 대한 것이다. 이승현도 6편의 글 중 한 편은 제31회 대구연극제에 대한 것이고 이정숙 역시 제32회 대구연극제에 대해 글을 썼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연극제에 참가하기 위한 대구연극제는 대구 연극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연비평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것을 한 항목으로 묶어내지 못하고 개별 필자의 글로 흩어놓았기 때문에 대구 연극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특화시키지 못했다. 또한 대구의 로컬리티를 정체성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대구시립극단의 활동은 그 특수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구 연극이 호명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대구 연극인데, 이 단체의 활동도 필자들 속으로 흩어져 버렸다. 대구 시립극단에 대해서는 손증상의 글이 3편, 이수은이 1편(대구 예총이 주관한 <대구 아리랑>을 포함시키면 2편이다), 이승현이 1편, 이정숙이 2편으로, 대략 전체 7~8편이기에 충분히 하나의 카테고리로 설정하고도 남는다. 대구연극제와 대구시립극단으로만 한정해도 해당 원고가 12편에 이르는 데, 이렇게 모임의 특색을 선명하게 해 줄 원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무화시키는 구성을 취한 것은 여전히 불만이다.

첫 번째 평론집이니 출판 경험도 없었을 것이고, 일단 출판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을 수 있다. 처음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이런 구성이라면 평론집으로서의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

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 두 번째 평론집부터는 다른 구성을 취할 수 있기를, 대구 연극은 물론이고 공연비평모임의 지향점과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길 진지하게 요청한다.

2. 기록하기와 비평하기

머리말에서 서술하기를, “연극 비평은 연극의 현장을 기록하고, 연극 공연을 기억하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5면)이라고 했다. 기록과 기억, 의미화. 기록이 이른바 팩트체크이자 증거채집의 실질적인 근거자료를 만드는 작업이라면 기억과 의미화는 본격적으로 비평가를 매개로 한 비평의 영역에 해당된다. 기록은 영상이, 기자가, 극단 자체가, 그 누군가가 할 수 있다. 근대 공연에 대해 무수하게 기록해놓은 신문기사들이 기록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행위이다. 그러나 비평가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 공연을 어떻게 의미화하며 어떤 기억으로 남겨져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수행하는 존재가 비평가이기 때문이다.

비평집의 다섯 필자는 기록과 비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했다. 기록에 대해서는, 비평 대상 작품에 대해 이전 공연 내역과 단체의 활동 경력 등을 반드시 검토했고 그 내용을 서술했다. 글의 말미에는 표를 만들어 해당 작품의 공연일, 공연장소, 연출/작가, 배우를 필수 항목으로 적어 넣었고, 필요에 따라 제목과 공연극단을 표에 추가하기도 했다. 그저 글만 실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서지사항을 정리해서 표로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기록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면 작품의 공연 서지사항은 글의 말미가 아니라 처음에 제시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

문이다. 비평 대상 작품이 몇 년에 공연되었는지, 작가가 누구고 연출이 누구인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후 비평을 읽을 때와 비평을 다 읽고 구체적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은 작품의 이해는 물론 비평의 이해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이왕 표로 작성된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공연 서지사항은 글의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을 원하는 바이다.

기억과 의미화라는 비평하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문학 전공자가 느끼는 비평의 제한적 시각에 대한 고민이다. 문학으로 희곡을 먼저 접했기 때문에 비평이 주제 중심의 내용 분석이라는 문학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고민.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한 종합예술로서 연극을 보는데도 분석할 때는 수많은 것들을 배제한 채 주제와 내용에만 집중된 비평을 한다는 자각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필자들보다 조금 앞서 비평을 시작한 경험자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내용이나 주제 분석도 제대로 안된 비평보다는 꼼꼼하게 분석하는 비평이 훨씬 나은 것이 사실이고, 또한 관극 경험이 쌓이다보면 음악이나 조명, 혹은 배우의 연기가 주제를 넘어서는 경우들을 만나면서 보다 넓은 범주의 내용을 서술하게 된다. 그러니 실상 그 고민은 지속적으로 안고 가되 거기에만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필자들의 비평문들도 대부분 주제와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배우의 연기, 음악의 특성, 무대 구조의 의미, 의상이나 조명 자체 등을 조망한 것은 내용 분석에 필요한 경우 혹은 내용 분석이 끝난 후 구색 맞추기 식으로 서술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인 만큼 주제 분석에는 매우 적극적이어서 셰익스피어극의 현대화를 꾀한 작품의 경우 원작의 의미와 현대화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번안한 작품에는 번안의 자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그 목적의 타당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개작한 작품은 개작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유의미한 가치를 찾아내려고 했다. 사료들을 기반으로 한 꼼꼼한 연구자의 자세가 연극 공연에도

고스란히 적용된 부분이고, 그것이 작품의 이해와 의미화에 중요한 부분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중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는데, 이미 2000년대 들어서 변화된 마당극 지형을 읽어내지 못한 채 이전 시기의 평가를 전제한 한정적 시선(63면), 각색이 아닌 번안임을 밝혔기에 번안의 의도와 효용성을 타진해야 하는데도 원작의 면면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면서 각색의 충실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태도(211면) 등이 그것이다.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위한 객관적 현황 파악은 필수이며 작품의 특색에 맞는 분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는 비평하는 것이 부족한 점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비평집을 읽으면서 그나마 대상 작품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준 글을 한 편(「함께라면, ‘꿈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극단 함께사는세상, <이제, 그만...>」)밖에 찾지 못했다. 부분적으로 작품의 긍정적인 측면을 서술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 한계로 인식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머리말에서 밝혔듯 “대구 지역 극단과 공연에 대한 감시자이자 든든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감시자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으나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힘내라고 어깨를 토닥여야 할 때도 있는데 계속 채찍질만 하는 지원자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리어왕>은 야심찬 준비에도 대구시립극단의 정체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듯하다. 장막극을 준비한 극단의 노력과 수고를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다. 시립극단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한, 극단의 노력과 수고에만 만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극단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태도일 것이다. 극중 리어는 죽었지만, 시립극단은 남아 있다.”(228면)

어쩌면 지역 연극으로서 대구 연극에 대한 정체성은 필자들 스스로가

연극인들보다 더욱 강박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인용문을 보면 노력과 수고는 인정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력과 수고가 눈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우선 칭찬할 일이다. 그 노력과 수고가 앞으로 지속되고 발전되는 방법과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지원자가 해야 할 말일 것이다. 그런데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니 만족하는 것 자체가 폄하이고 기만이라는 서술 속에 노력과 수고의 가치도 사라져 버렸다. 감시자와 지원자가 한 몸이라면 같은 말이라도 지원자의 어투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비평집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한계’, ‘아쉬움’, ‘문제점’, ‘실패’ 등의 단어들은 비평 대상인 대구 연극 자체에 대해 어떤 장점도 발견하기 어렵고, 발전적 기대도 하기 힘든 문제적 상황을 만들어 냈다. 공연비평모임에서 지향한 기억과 의미화의 비평 활동이 설정한 목표는 분명 그것이 아닐 것이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3. 연극인도 없고 대안도 없는 대구 연극?

서평을 청탁받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론집을 면밀하게 읽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대구 지역은 극장 연구로 관심을 가졌던 곳이라 평론집이 더 반가웠다. 그런데 다 읽고 책장을 덮으면서 머리가 더 복잡해졌다. 우선, 대구 연극에 대한 평론집 한 권을 다 읽었는데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극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어서 대구 연극의 특성, 대구 연극의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무수히 봤는데, 도대체 대구 연극이 뭐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이 두 가지는 공연비평모임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러나 앞으로는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대구 연극인들에 집중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한계와 실패에 대한 서술을 주로 하다보니 누군가를 지목하는 듯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한 결과

아닐까 추측해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 가령, 창작극을 살펴본 비평문의 경우 창작극의 핵심은 작가인데 작가에 대한 집중적인 조망이 없다. 대구시립극단이 ‘대구만의 소재’를 발굴하여 창작한 <비상>을 논할 때도 내용과 주제는 치밀하게 분석했지만 그것을 창작한 작가 안희철에 대한 서술은 빠져있다. 극단 가인에서 <부재>라는 제목으로 세 편의 유니버스 작품을 공연하였는데, 개별 작품이 어떻게 다른가는 친절히 분석했지만 장종호나 김성희 작가에 대한 서술은 없다. 안희철 작가는 작품 공연 서지사항에 주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대구의 대표 극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듯한데, 그가 창작한 <비상>, <럭키데이>, <유모> 등의 비평에서 안희철에 집중해서 서술된 내용은 없었다. 이것은 연출가와 배우에게도 해당된다. 안민열, 김미정 등의 이름이 연출로 자주 오르내리지만 어떤 특색의 연출을 보여주는지, 연극적 지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서지사항의 표에 배우들이 맡은 역할까지 친절하게 표기했지만 극단을 대표하는 배우가 누구인지, 연기가 어떠했는지는 충실히 서술하지 않았다.

다섯 명의 필자는 약속이나 한 듯이 연극인에 집중하는 대신 극단 전체, 작품 전체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박근형이나 최용훈처럼 서울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연출가의 경우는 ‘박근형의 <해방의 서울>’처럼 개인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 넣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단 가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작품이 있고 극단 가인의 ○○○ 작가나 ○○○ 연출가로 설명될 수 있는 작품이 있다. 연극이 집단예술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집단 자체가 사람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연극인에 대한 관심은 연극 비평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공연비평 모임에서 놓치고 있는 듯한데, 기록과 비평의 역할과 함께 연극 비평이 중요하게 담당하는 것은 연극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그 성장을 함께 하는 일이다. 작품은 맘에 안들고 성에 안 차지만 그 속에서 작은 빛을 내는 사람이 있다. 그 빛을 잃지 않게, 좀 더 환한 빛을 발할 수 있게 힘을 실

어주는 것도 비평가의 몫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필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비평하는 형식이었다면, 이후에는 작가론, 연출가론, 배우론과 같이 연극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비평도 기획되어 진행되길 바란다. 대구 연극하면 떠오르는 연극인이 최소 몇 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대구 연극의 정체성’을 찾는 실천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비록 박근형의 <해방의 서울>이 대구시립극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 주는 대표 연극은 아닐지라도, 대구시립극단이 정체성을 고민하는 가운데 만난 <해방의 서울>은 대구시립극단과 대구 연극계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125면)

위 인용문은 ‘대구 연극에 대한 필자들의 관심이 매우 근본적이며 중요한 것임을 선명하게 보여준 부분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비평가들에게 박근형의 <해방의 서울>은 그가 전작들에 비해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작품 자체를 분석하고 살펴보는 데에 집중했는데, 대구라는 지역에서는 박근형 자체보다는 그 작품을 공연한 대구시립극단을 더 중요하게 주목한다는 메타적 시선이 발견되는 지점이다. 이것은 어떤 작품을 보든 대구 연극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화두를 떼어놓을 수 없는 지역 연극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한편으로는 대안도 없이 찾아내라고만 으박지르는 비평가의 강박으로 읽히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 어쩌면 대구 연극인들보다 필자들이 정체성 찾기에 더욱 강박되어 있는 것도 같다.

“왜 대구의 극단다운 레퍼토리를 선택하여 대구연극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일까.”(342면)

다른 필자들에 비해 이승현의 경우 대구 연극에 대한 고민이 집중되어 있는데, 실상 비평문을 읽어보면 위의 인용문처럼 문제점은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대구 연극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해야 하는지 필자들도 대안이 없고 그려놓은 밑그림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대구 극단들이 실제로 만족스러운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즉, 공연을 보면서 단번에 ‘아, 이게 대구 연극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체를 알 수 없는 그저 막연한 개념의 ‘대구 연극’이라는 프레임을 걸어놓고 공연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득 채울 작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대구 연극은 대구방언을 써야 하나? 대구의 지역적 소재를 다루어야 하나? 대구 출신의 역사적 인물을 다루어야 하나? 필자들이 연극에게 요구하는 대구적인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비단 대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연극인들과 지역 비평가들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화두이겠지만 적어도 대안 없는 비판은 지양했으면 한다. 왜 그랬냐고 책임을 묻는 존재가 비평가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제안하는 존재가 비평가이기 때문이다.

대구 연극에 대해 잘 모르지만, 충분히 열심히 활동하는 연극인들도 있고 충분히 고민하는 대구 연극의 정체성도 있을 것이다. 그 작은 싹을 발견하고 희미한 불빛을 키워주는 것도 감시자이자 지원자인 비평가의 역할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평론집에서는 풍성한 대구 연극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들이 고민하는 대구 연극의 정체성을 더 다양하게 들여보고 싶다.

연극 현장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은 항상 반갑다. 함께 연극을 이야기하고 현장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늘었다는 반가움일 것이다. 더구나 개별의 활동이 아닌 다수의 활동은 서로가 발현하는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이다. 이렇게 반가운데도 글에서는 쓴

소리만 한 것 같다. 너무 반갑고 좋으니까, 그래서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한 것으로 여겨졌으면 좋겠다.

비평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반가운 것은 이 일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견뎌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 맞춰 극장을 찾아가 연극을 봐야 하고, 그것을 글로 정리하고 표현하는 시간을 들이는 것이 어지간한 애정이 없으면 힘든 일이다. 더구나 비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작품을 봐야 하고, 뭔가를 적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도 검토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다. 그런 수고로움을 감내하려는 모습이 반가운 것일 터이다. 연극 비평은 꾸준히 공연을 보고 꾸준히 글을 쓰는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연비평모임의 다섯 필자는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지속적인 비평 활동의 결과물들을 계속 출판해 선보여주기를 바란다.